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⑤

걸림없는 변재로 인연따라 교화해야

行者如是觀時 雖知一切諸法畢竟空寂 能於空中修種種行 如空中種樹 亦能分別衆生諸根 性欲無量故 則說法無量 若能成就無礙辯才 則能利益六道衆生 是名方便隨緣止 乃是從空入假觀 亦名平等觀 亦名法眼 亦名道種智 住此觀中 智慧力多故 雖見佛性而不了 菩薩雖復成就此二種觀 是名方便觀門 非正觀也

수행자가 진제 공(空)에서 속제 가(假)로 나오는 관법인 중공입가관(從空入假觀)을 성취했을 때 안으로는 몸과 마음이, 밖으로는 세계와 윤택과 무정이 필경 공적하다. 그러나 이 공적인 가운데서 갖가지 허깨비와 같은 수행문을 뒤야 도량을 건립하고 불사를 일으키는 것이 마치 물에서 노니는 물고기의 흔적과 같고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와 같아 한번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흔적에 집착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는 허깨비와 같은 약으로 허깨비와 같은 병을 다스리며 허깨비와 같은 경전을 강의하고 허깨비와 같은 설법을 하여 한량없는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를 받는 대상도 허깨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많은 경전에서는 “가령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으로 심성과 육근과 육진이 모두 허깨비의 변화라는 것을 알고 모든 허깨비 법문을 일으켜 허깨비를 제거하여 허깨비를 변화시켜서 허깨비와 같은 중생을 제도한다면 허깨비와 같은 법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내적으로는 대비심이 일어나 일체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일으켜 집진적으로 수행이 증가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진제 공을 따라서 속제 가로 나와 허깨비와 같은 법문을 뒤는 중공입가관이 된다.

보살이 도종지(道種智)가 발현한 뒤에는 바로 걸림 없는 변재를 일으키게 된다. 걸림 없는 변재는 네 종류가 있는데, 이를 사무애변(四無礙辯)이라고 한다.

첫 번째로는 의무애변(義無礙辯)인데, 이는 일체 의리를 명료하게 통달하여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범무애변(法無礙辯)인데, 이는 일체 법상의 명자를 통달하여 걸림 없이 분별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무애변(辭無礙辯)인데, 이는 모든 법의 명자와 의리로 일체 중생을 수습하여 지역 따라 다른 방언으로 서 연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의 언어로 이해하여 변설이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낙설무애변(樂說無礙辯)인데, 이는 일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들이 즐겨듣는 법문으로 설법을 하여 설법이 원유하고 걸림이 없어 하루 종일 설법을 한다 해도 피로한 마음이나 권태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변재가 있어야만 육도세계의 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방편수연지(方便수연지)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수행이라는 점이다.

그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땐 밥을 먹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고, 차를 마실 땐 차를 마시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며, 짐을 싣고 팔을 흔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전송할 때 등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이 됐든 돌이켜 관찰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자연히 망념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마음이 없고 마음에는 두 가지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옛 큰스님은 “인연 따라 본성을 깨달으면 그곳에는 거짓도 없고 진실도

인연따라 본성깨달으면 거짓도 진실도 없어 세상살이 하는 재가인은 방편수연지가 적합

제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 허깨비와 같은 걸림 없는 변재로 인연 따라서 방편으로 교화하는 것에 대해 명료하게 통달하게 된다. 이를 두고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라고 한다.

가령 연불결사를 한 재가자들이 세상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방편수연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세상살이를 할 때 모든 처소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제 공으로부터 속제 가로 들어가는 관법이며 이를 평등관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열반의 공에서 생사의 가로 들어가므로 공을 관하여도 원래 공일 뿐 만 아니라 공이면서 공이 아니어서 공과 가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등관(平等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에 치우치지도 않고 유에 치우치지도 않아 공의 처소가 원래 유이고 유의 처소가 원래 공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두고 공과 유가 두 모습이 아니며 진제와 속제가 평등하다고 한다. 이 평등관을 법안(法眼) 또는 도종지라고도 한다.

없다”라고 말씀했으며 “걸어도 선이고 앉아도 선이다”라고 했으며 또 “걸어도 아미타염불이고 앉아도 아미타염불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모두는 방편수연지의 작용에 해당된다.

가령 연불결사를 한 재가자들은 세상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방편수연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세상살이를 할 때 모든 처소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제 공으로부터 속제 가로 들어가는 관법이며 이를 평등관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열반의 공에서 생사의 가로 들어가므로 공을 관하여도 원래 공일 뿐 만 아니라 공이면서 공이 아니어서 공과 가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등관(平等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에 치우치지도 않고 유에 치우치지도 않아 공의 처소가 원래 유이고 유의 처소가 원래 공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두고 공과 유가 두 모습이 아니며 진제와 속제가 평등하다고 한다. 이 평등관을 법안(法眼) 또는 도종지라고도 한다.

법안으로는 속제만을 관찰하는데, 도종지

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면서 일체의 도로써 중생의 선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도’는 도를 닦는다는 뜻이고 ‘종’은 종자의 의미인데, 이것이 도를 수행하는 종자이다.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면서 각자 종자의 차이가 난다. 보살은 십법계의 차별적인 도의 종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도종지라고 부른다. 이를 요약해서 말하면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거기에 알맞은 가르침을 베풀어 병에 따라 약을 투여한다는 의미이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반드시 도종지가 있어야 만이 법안이 원망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생을 제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하지만 도종지는 쉽사리 깨닫지 못한다. 지금 말법 시대에서 법을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한다면 늙을 때까지 염불을 진실하게 하여 한 구절 아미타명호를 부를 경우 그 자리에서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이 없으며 안으로는 신심과 밖으로는 세계에 대한 집착을 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 공부이다. 또 소리소리 부처님명호를 부를 때마다 부처님 상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것은 ‘관’ 수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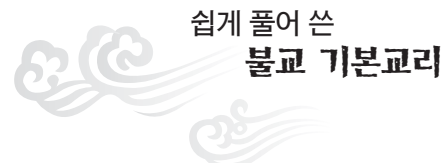
염불을 부르는 자와 부르는 대상인 부처님 등이 둘을 쌍으로 있는 경지에 이르러 자타가 둘이 아닐 땐 이 경지에 마음을 되돌려 허깨비와 같은 염불공부도 허깨비와 같은 중생을 교화하게 된다. 집착이든 병이든 논할 것 없이 단지 ‘아미타’라는 약으로서 중생을 다스려 중생들이 각자 허깨비와 같은 그림자모습을 소멸하고 임종시에 허깨비와 같은 극락에 왕생하게 해야만 한다. 이와 같다면 그 이익이 절묘한데 그 경지를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스님에 의해 제작 보급

동행 학원은 지상강의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승가대 강)와 호법유사의 비파사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유식학의 신유식 스님(태)을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2) 가행위(加行位)3-사종어실지(四種如實智) ③ 인위(忍位)

앞에서 인식대상경이 공적함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바로 뒤따라서 주관분별심마저도 공적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인순정(印順定)’이라고 합니다. 이 인순정으로서 하품어실지(下品如實智)를 일으켜 공적인 인식대상경에서 그 이치를 인지(印持)하고 공적인 주관분별심 가운데서도 역시 순차적으로 즐겁게 옳다고 인식[忍可]합니다. 인(忍)은 옳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식대상경은 공적했다 할지라도 인식분별마저 쉽사리 공적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식주관마저도 공적인 가운데서 순차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의지해서 ‘인위’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미 허망한 인식대상경계가 따르는데 어떻게 허망한 인식주관이 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식주관과 대상경계는 반드시 상대적인 의존관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동시에 공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난위와 정위에서 인식대상경이 공적함을 인지(印持)하고 인위와 세계일위(世第一位)를 따라서 주관분별심마저 공적해지므로 이를 총체적으로 인순정이라고 합니다.

④ 세계일위(世第一位)

다음으로 무간정(無間定)을 얻어 상품어실지(上品如實智)를 일으키고 인식주관과 객관대상, 즉 이취(二取=能取所取)가 모두 공적인 이치임을 인지(印持)합니다. 이를 의지해서 세계일법(世第一法)이 건립됩니다.

인위에선 주관인식이 공적함을 인지했으니 세계일법에선 주관과 객관이 쌍으로 공적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무간정부터는 반드시 견도위(見道位)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무간정(無間定), 즉 견도위와 간격단락이 없는 선정이라 합니다. 이 선정은 생각하는 세간법 가운데서는 특수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세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세계일법(世第一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행위에선 단지 우리의 심식 속에서 진여의 모습을 흡사한 모습으로 변형시켜 그것을 진여의 이치로 관찰할 뿐입니다. 이는 변상공(變相觀), 즉 진여는 차별상의 모습이 아닌데도 그것을 진여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여의 이치를 흡사한 모습으로나마 관찰하기 때문에 이 경지의 수행인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행자의 보살을 삼현(三賢), 또는 대승 초기 보살이라고 하며, 이들이 깨달은 경지를 ‘기신론’에선 상사각(相似覺)이라고 합니다. 이는 진여의 모습을 흡사하게 비량관(非量觀)으로 깨달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39기 기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前)서울 불교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現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윤한홍 교수님 직접 지도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4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9:20(11주과정) 4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전국 기힐링 센터
교대센터 / 부산센터 / 고양센터 / 대표전화
분당센터 / 대구센터 / 노원센터 /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命理學 수강생 모집

석충원(명양 명리학당)에서는 주주명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주강반 · 야강반 · 주말반

■ 입문반
3개월과정 매주 월 · 목요일,주말(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10만원

■ 연구반
6개월과정 매주 화 · 금요일,주말(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10만원

■ 실전반
3개월과정 매주 수요일 주말(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20만원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 연락처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5-43 ☎ 032)330-4684,503-4684

石充院(명리학당) 明陽 이태영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집합니다

종 정 자운 청봉 대종사 총무원장 월산 해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인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인증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집합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